

## 돼지가 TV-CF에 주연모델로 등장



### 햄 신제품

### “하이포크 미즈팜”

### 광고에 처음 출연

돼지가 TV광고 주연모델로 등장, 화제가 되고 있다.

미원그룹 계열의 (주)미원농장(대표: 조성환)은 햄 신제품 「하이포크 미즈팜」을 시판하면서 돼지를 모델로 한 광고를 제작, 지난 9월 3일부터 TV화면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그동안 고양이, 개, 닭 등이 광고에 동원된 적은 있었으나 돼지고기와 관련된 제품광고에 살아있는 돼지가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고에 출연한 돼지는 미원농장에서 사육중인 수만마리의 돼지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생후 4개월의 70kg 나가는 육성돈이다.

돼지모델은 8월초에 실시된 촬영을 위해 삼푸로 목욕을 하고, 헤어드라이어로 털을 말린 데 이어, 36℃를 오르내리는 더

운 날씨와 조명기기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쉽게 지쳐 휴식시간마다 얼음찜질을 받는 등 난데없는 호강을 누렸다고. 돼지는 땀구멍이 없어 더위에 약하고, 특히 주위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스트레스를 받지만, 극진한 대접속에 별탈없이 촬영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촬영장의 낮선 주변 환경에 놀라 껍뻑 소리를 지르며 사방으로 뛰어다니기 일쑤여서 광고 제작진은 돼지를 길들이는데 애를 먹었다고.

3일간의 촬영 강행군에 지쳐 버린 돼지는 세트장에 주저앉기 일쑤였다. 여하튼 주연배우는 고생끝에 연기를 훌륭히 해냈다. 이번 광고의 하이라이트인 돼지모델이 사람처럼 흡족하게 미소를 짓는 장면은 돼지가 실제 웃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기법으로 합성해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광고제작을 맡은 상암기획 관계자는 「하이포크 미즈팜이 냉동육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신선하고 안전한 냉장육만을 원료로 해 만든 고급제품임을 강조하기 위해 살아있는 돼지를 모델로 기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암기획측은 「인지도 극대화를 위해 비주얼 임팩트에 초점을 맞춘 이 광고는 인지도 뿐 아니라 선호도까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돼지모델의 주연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돼지고기에 대한 인지도와 인식이 크게 개선되기를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